

음주문화와 그에 대한 대책

1. 머리말



김 성 이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각종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알콜과 약물남용 문제 역시 수그러질 줄 모르고 증가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알콜과 약물남용 문제는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문제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알콜이나 약물남용이 일반화된 음주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은 일반화되어 왔으나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음주문화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음주문화의 본질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였다.

2. 음주문화권에서 금주문화권으로 바뀌면 사회문제가 줄어드는가?

사회가 알콜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가는 음주의 양태와 사회문제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음주문화인 우리 사회를 금주문화로 바뀌서 사회문제를 줄여보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과연 음주문화권에서 금주문화권으로 바뀌어 가면 사회문제가 줄어들 것인가?

음주문화(Wet drinking Cultures)는 사회적으로 음주가 인정되는 사회를 말하고, 금주문화(Dry drinking Cultures)는 음주가 금지되는 사회를 말한다. 한 유럽의 보고서에 의하면, 음주문화권(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 목 차 ■

1. 머리말
2. 음주문화권에서 금주문화권으로 바뀌면 사회문제가 줄어드는가?
3. 사회문제의 주범인 알콜중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알콜남용에 대한 기본적 대책

프랑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스위스)에서는 일상적으로 알콜음료의 소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일상생활에 있어서 와인이 자주 사용되는 반면에, 금주문화권(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와인보다는 카테일 등이 더 많이 소비되며 금주문화권에서 카테일 류의 소비는 음주문화권의 1.5배에 달했다고 한다(Room, 1972).

음주문화권과 금주문화권은 음주 양태에도 차이를 가져본다. 즉 음주문화권에서는 매일매일 음주하는 형태인데 비해서 금주문화권에서는 대체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주말에 간헐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술잔치를 하는 형태의 음주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음주문화권과 금주문화권의 차이는 음주 양태 뿐에서만 아니라 술에 대한 사회, 경제, 법적 규정에 있어서도 독특한 차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금주문화권에서는 술을 팔고 구입하는 장소나 때를 엄격하게 규정하며, 술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술값은 음주문화권보다 일반적으로 비싸다.

다음 알콜과 사회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알콜과 폭력 등이 사회문제와 관련되어 금주문화권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살인, 폭행, 술소비량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스칸디나비아자료와 프랑스자료를 비교한 Lenke(1990)는 국가간에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최근에 모든 국가들이 물질문명화됨으로 국가간의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가간 비교연구보다 특수지역간의 비교 연구가 더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음주와 폭력의 관련성은 음주문화권이나 금주문화권이나의 차이에서 보다 그 사회가 음주에 대한 문화적 기대와 규범이 갈등상태

에 있을 때에 더 알콜사용빈도나 범죄와 폭력의 발생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Krohn, 1991)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또, 남성집단만을 비교한 한 연구에서는 금주문화권에서 술로 인한 폭력이 음주문화권에서 보다 더 많았다(Room, 1989)는 보고서도 있다.

음주와 금주가 혼합된 문화권에서는 폭력상황이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다. Parker(1992)는 혼합된 문화권에선 금주문화권이나 음주문화에서보다 여성들에 대한 살인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이유는 음주문화권의 속성에 금주문화권의 속성인 간헐적인 폭음행위가 겹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혼합된 음주문화권에서 여성살인율은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Parker, 1992).

살인은 이혼율과 관계가 깊다. 왜냐하면 이혼은 전통적인 사회유대의 단절과 관련되며 이혼율이 증가할 때, 이혼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살인위험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혼은 성적 갈등과 관련되기 때문에 높은 이혼율이 높은 살인율과 관련이 있다. 이혼율 증가와 여성살인율을 비교할 때 이혼증가율은 금주문화권에서는 여성살인율의 20%정도 영향을 주는데 비해서 음주문화권에서는 40%정도, 그리고 혼합된 음주문화권에서는 75%정도나 여성살인율을 설명하는 요인이다(Parker, 1993)라는 보고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사회유대와 함께 중요한 사회문제 요인의 하나인 빈곤문제와 알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음주는 빈곤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Parker(1993)는 술소비의 증가는 빈곤과 살인의 증가와 관련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음주와 관련된 폭력 행위를 더 많이 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폭력을 통해서 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더 많이 음주를 하고 총동적인 행동을 해서 살인 등의 사회문제로 더 많이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처럼 알콜과 사회문제가 관련되어 있으나 어떤 사회가 단순히 음주 문화권이다 금주 문화권이다 라고 해서 사회문제가 더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사회인가 즉 어떤 사회적 유대와 사회적 규범을 가지고 있는냐에 더 사회문제가 좌우되는 것이다.

3. 사회문제의 주범인 알콜중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중보건에서 질병은 작용물, 숙주, 환경이 있어야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이 3가지 개념을 약물남용에 적용해 보면 작용물에 해당하는 것은 약물이고, 숙주에 해당하는 것은 남용자 자신이며, 환경은 약물남용에 대한 사회의 관념과 기대라고 해석될 수 있다.

아무리 약물이 있고 남용대상자가 있더라도 사회적 환경이 작용하지 않으면 약물남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음주에 대해서 어떤 신념, 가치, 태도 및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사회 인류학적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알콜 및 약물남용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발표된 주요 사회 인류학적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1) 소비분포 이론

이 이론은 개개인의 음주습관은 주변 사람들의 음주습관과 관계된다는 주장이다. 즉 개인이 음주를 할것인가 아닌가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자주 마시는가를 지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주변사람들이 많이 마시

고 있다고 느낄수록 자신도 많이 마시고 또 이를 지며본 옆 사람도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음주패턴은 눈덩이 효과를 지닌다는 것이다. 즉 사회학습이론의 “또래 압력”, “모델링”과 동일시되는 “눈덩이 효과”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눈덩이 효과”는 알콜중독자 주변의 사람은 알콜중독자가 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소비분포이론에 입각한 알콜중독 예방책으로는 알콜에의 접근성 제한이 강조된다. 즉 가격을 올린다든지,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영업시간을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알콜의 소비 기회를 줄이면 알콜중독자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소비분포이론은 Ledermann(1956)이 알콜과 간경화의 관련성에 대한 논문에서 발표된 이래 점차 확대되어 최근에는 알콜 판매와 세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등 계량적 수준까지 발달되어 있다. 일반 약물남용 영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 불안이론

이 이론은 왜 술을 마시는가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세상만사 모든 일을 잊기 위해서 마신다는 대답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점에 처음 착안한 학자는 인류학자인 Horton(1943)이었다. 그는 알콜 중독자의 심리적 요인과 행동유형간의 관련성을 관찰하는 가운데서 불안심리가 알콜 중독자를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발견을 확대하여 모든 사회에서 음주에 대한 반응의 정도는 그 사회의 불안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불안이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먼저 설명된 소비분포이론은 알콜중독자의 중독에 초점이 주어져 있는데 반해서 이 불안이론은 중독보다는 음주형태나 과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불안은 사회가 아노미적 상태에 있

을 때 더 증가한다.

Schaefer(1974)는 사회문화적 박탈 즉 규범이나 가치있게 여겨지는 문화에서 소외된 인구층에서 알콜관련 문제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회문화적 박탈은 자신 가치의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자아개념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아노미적 우울증을 낳고, 이 우울증으로 인한 불안때문에 알콜을 찾게된다는 것이다. Beaubrun(1967)역시 자아상, 자아요구, 열등감 등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박탈을 많이 받는 집단에서 알콜중독자가 많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불안이론에 따르면 알콜은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키는 일차적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3) 의존갈등이론

이 주장은 사회가 성인들에게 더욱 독립된 개체로서 생활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알콜중독자가 나온다는 주장이다. 아동들에게는 의존성을 허용하고 성인에게는 책임있고 독립적인 성취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는 개인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이에 의한 역할갈등은 개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음주를 통해 불안을 감소하고자 하거나, 성인생활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삼고자 폭음을 한다는 것이다.

Child등(1965)은 사회가 성인들에게 독립을 강조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의존성에 대한 갈등이 증가하며, 그런 사람들은 의존갈등에 대한 반동으로써,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알콜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불안과 긴장을 감소시키고, 둘째, 의존욕망을 충족시키며, 셋째, 비현실적인 성취 환상에 몰입하게 해주기 때문에 알콜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사회문화적인 “의존성에 대한 갈등”모델은 정신분석적 “의존”모델과는 사회적 기대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4) 권력이론

위의 의존갈등이론은 독립적이지 못해 갈등을 느끼는 알콜 중독자에게는 잘 적용되나 갈등 이전에 독립을 추구하고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 알콜을 사용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권력이론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심리적인 알콜사용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회화된 권력은 물론 개인화된 권력도 포함하고 있어 정치, 경제 이론 및 사회학습 이론과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음주가 권력감을 준다는 사실은 신체 기질적 효과도 고려하고 있어 신경생물학과도 관련되기도 한다.

McClelland등(1972)은 “인간은 더 강한 느낌을 갖기 위해 음주를 한다”고 하였다. 즉 “개인적 권력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McClelland등은 사회권력이나 인정을 얻지 못한 남자는 원시적이고 자기도취적인 개인적 권력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음주를 한다고 하였다. 이런 견해는 사회·인류학적이면서 심리학적으로 추론될 수 있다.

왜냐하면 권력과 관련된 인간의 무능력, 낙약함, 의존성이 음주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알콜의 마술적 느낌을 갖기 위해서 알콜에 의존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권력이론과 의존갈등이론은 알콜중독자를 음주로부터 권력이나 독립으로 인한 갈등을 가진 사람들로 본다는 점에 대해서 공통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이론은 집단원보다는 개인의 음주형태나 중독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

5) 규범이론

이상의 모든 이론들을 묶은 이론이 규범이론이다. 알콜과 그 효과에 대한 신념과 행동의 유형은 사회학습으로 전달되고 보상되며 문화화되어 그 사회의 성원에게 공유된다. 알콜중독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을 묶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가 성인에게 주는 내적 긴장의 정도이고, 둘째는 사회가 음주를 어떤 태도로 보는가, 즉 의식적으로 보는가, 실용적으로 보는가, 오락적인가의 음주에 대한 문화적 태도이며, 셋째는 그 사회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대안적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의 대처방안 등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Bales, 1946)

사회문화적 요인이 음주 유형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1950년 이후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이론이다. 민속학적 연구에 의해 사회는 성인에게 긴장을 주며, 사회는 제각각의 음주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음주 양식은 사회의 기대에 따라 학습된다고 주장되었다. 1970년과 80년대 들어와서는 더욱 사회의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생물학적, 의학적 이론보다 사회문화적 이론이 더 강력해지게 되었다.

규범이론이 적절히 적용될 경우 알콜 보급률의 차이에 관한 설명을 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규범이론에 의하면 약물과 관련된 문제의 유형과 알콜 중독 비율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신념과 태도에 따른다는 것이다. 특정 사회의 신념과 태도를 안다면 그 사회의 알콜 남용 정도는 ‘누가(연령, 성, 결혼유무, 기타 사회적 요인), 언제, 어떻게’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Pittman(1967)은 이 규범이론에 따라 알콜에 관한 문화유형을 네가지로 구분하기도 하

였다. 즉 단속이 심한 절제된 사회, 알콜 허용에 대해 이중적인 사회, 알콜을 허용하되 과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회, 과도하게 허용되는 사회 등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 네가지 사회유형에서 모두 알콜 중독자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절제된 사회에서도 알콜중독자가 나온다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절제된 환경에서는 알콜사용을 문제화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알콜사용에 대해 이중적인 사회에서도 규범혼란으로 알콜중독자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히려 음주 관습이 허용되는 사회에서는 중독비율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도 있다(Ullman, 1958).

이 규범이론이 갖는 하부개념들을 다음과 같다.

① 일탈

규범이론의 하부개념으로서 일탈에서는 알콜중독을 지배적 규범을 고수하지 않는 “나쁜”행동의 결과로 본다. 그래서 알콜중독을 매춘, 동성애 등과 같이 문제행동으로 다룬다. 사회적 일탈에 더 관심을 갖는 분석자들은 규범의 차원에서 알콜중독자의 해결방법을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행위자의 개인적 규범보다는 개인의 행동을 판단 평가하는 사회의 견해, 즉 집단 규범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② 낙인화

규범이론의 또다른 하위개념의 하나인 낙인화는 왜 개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알콜중독자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지배적 규범의 지지자가 알콜중독자를 분리하려는 한 방법이 낙인인데, 어떤 사람이 한 번 “주정뱅이”로 불려지면 그 낙인에서 벗어

나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주정뱅이로 남아 있으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즉 낙인찍힌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느껴 계속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려는 매력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알콜중독자를 치료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것이다.

③ 아노미

지배적 규범과 일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노미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또한 지배적 규범을 수용하려해도 성취할 수 없는 사람도 아노미적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아노미적 스트레스는 심각한 심리적 요소로 인식되어 취하도록 마시는 것이 긴장을 감소시키고, 문제를 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전통적 문화를 거부하면 다시 수용되는 어렵기 때문에 아노미적인 알콜중독자는 기성사회와 알콜중독사회의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살게 된다. 아노미란 개념은 불안이론에서 나온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아노미는 사회적 위치를 변화시키는 사람에게서 생기는 약물남용 및 중독의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④ 양가감정

알콜문제에서는 양가감정이란 개인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아니라 사회규범의 일관성 결여를 말한다. 양가 감정의 예로 사회가 아동들의 음주는 터부시하면서 성인의 음주를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일관성이 없는 사회적 규범에 대처하기 힘든 사람은 긴장을 더 받게된다. 이런 긴장으로 알콜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은 불안이론의 과정과 같다. 사회가 쾌락주의와 금욕주의가 병행될 때 더 알콜중독자가 더 발생하는 것도 이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인류학 이

론들은 약물관련 현상을 보는 방식을 묶어 주는 면에서, 또 개인과 사회의 상호관련성을 이해시켜주는 면에서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4. 알콜남용에 대한 기본적 대책

알콜남용을 크게 문제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알콜중독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만병통치적 단일 대안은 없다. 알콜사용자체가 심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요인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알콜문화가 형성되기 까지에는 그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제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알콜중독자를 줄이기 위한 만병통치적 처방은 없으나 왕도는 있다. 그 왕도란 바로 앞에서 제시한 문화적 이유를 고려한 올바른 알콜사용을 가르치고 알콜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 교육은 다음 세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이고, 둘째는 특정집단에 대한 교육이며, 셋째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훈련이다.

이 세가지 예방교육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예방교육

여기에서 지역사회란 지리적인 경계를 지닌 사회를 지칭한다. 크게는 나라전체가 되겠지만, 작게는 최소행정단위의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지역사회 경계가 구체적일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 지역사회 구성원은 구성원으로 흥미나 관심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 그 지역사회의 주민의 욕구와 문제를 분명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경계가 뚜렷하여야 한다. 만일 전국적인 지역사회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알콜문화 개선을 위한 전국 캠페인'을 권하고 싶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법무부등과

함께 관련, 정부부처와 주류관련 기관과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대대적인 운동이 되어야 한다.

이 운동은 2~3달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캠페인이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참가하고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캠페인 실시기간이 2~3개월이라면 이의 2~3배인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어야 한다. 이 기간동안에 학교나 사회단체등 캠페인 직접 실시기관의 요원들이 확실한 업무를 인식하도록 하는 사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언론매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언론은 감각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사전 준비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알콜문화를 직접 다루기 보다는 시민들의 생활양태를 개선하도록 하는 근원적 접근을 하여야 한다.

2) 특정집단에 대한 교육

알콜남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지역별, 대상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집단과 빈곤지역이 대상이 될 것이다. 지역교육청, 학교당국 및 지역사회 기관에서는 접근방법을 개방화시켜야 한다. 이때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은 운동, 식이요법, 성교육, 건강교육, 금연교육 등과 같이 다양히 준비해야 한다. 또한 법규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방법은 강의와 시청각 교육은 물론 토의 등의 참여학습이 주가 되게 하며, 역할극등의 소집단 방법등 다양한 교육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민간단체들에서는 거리의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한 현지 출장 예방할

동(out-reach work)을 실시하며 이때는 현지주민을 최대한 참여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주민 중 여성들의 참여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

3) 전문가 훈련

지금 우리사회는 알콜관련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전문가 양성교육기관이 부족한 것도 심각한 현실이다. 알콜남용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 근무자를 집중적으로 예방교육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강구·지원되어야 한다. 경찰관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경찰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 알콜중독자 치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근무초기에 받도록 해야 한다. 물론 사범대 교육과정에 알콜에 대한 교과목 개설이 있어야 한다. 교사들의 재교육 과정에 알콜관련교육과정도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을 비롯한 상담사들에게도 기본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들에게는 많은 자료 제공을 통해서 알콜 관련 문제는 특수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묶어서 지역문제해결에 참여하여 함께 토의하게 하는 다중교육기회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예방교육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우선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알콜문제를 진단하고 관리하는데 관련된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일이다. 지역주민들이 자제감시방법, 상호인간관계형성, 인권존중운동, 종족자치 보호방법 등에 관해서 구체적 교육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는 알콜남용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알콜에 관한 일반시민과 전문가의 태도를 교정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때 정부와 민간 기관 참여방법과 협동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는 알콜사용과 남용 그리고 중독에 관한 최근의 실태를 조사해서 파악해야 하며 알콜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구체화해야 한다. 알콜문제의 해결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이다. 알콜문제는 약물사용에 대한 국민의 태도, 여가생활 및 가치관 전반에 관련된 것이므로, 알콜로 인한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수준에서의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에 앞서 교사, 청소년지도자, 경찰관, 의사, 사회복지사, 보호관찰사, 보건당국자들이 합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들의 참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책입안자들 즉, 교육부, 보건복지사, 문화체육부, 내무부, 법무부의 장관과 민간사회단체가 참여한 건전사회만들기 운동연합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과 관계자들이 건강한 사회의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할 때만이 21세기에는 기필코 건강한사회를 만들 수 있다.

【 참고문헌 】

1. Bales, R. F. Cultural differences in rates of alcoholism,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946, 6, 480-499
2. Beaubrun, M. H. *Treatment of alcoholism in Trinidad and Tobago*, 1956-1965.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967, 113, 643-658
3. Blacker, E., *Sociocultural factors in alcoholism*. *International Psychiatry Clinics*, 1966, 3(2), 51-80
4. Child, I. L., Bacon, M. K., & Barry, H., III. A Cross-cultural study of drinking.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Supplement No, 3 1965

5. Horton, D. J., The functions of alcohol in primitive societies: A cross cultural study.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1943, 4 199-320

6. Krohn, M., *Control and deterrence theories*. In : Sheley, J. ed. *Criminology : A Contemporary Hanbook*. Belmont, CA: Wadsworth, 1991. pp 295-314

7. Ledermann, S. Alcohol, Alcoholism, Alcoholisation: scientifiques de caratere physiologique, economique et social. *Travaux et documents de l'onstitut National d'Etudes Demographiques*, 1956, 29

8. Lenke, L., *Alcohol and Criminal Violence : Time Series Analysis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Stockholm: Almqvist and Wiksell, 1990

9. McClelland, D. C., Davis, W. N., Kalin, R., & Wanner, E. *The Drinking Man*. New York: Free Press, 1972.

10. Parker, R. N. "Alcohol, Homicide and Cultural Context: A Cross National Analysis of Gender Specific Homicide Victim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18th Annual Alcohol Epideminological Symposium Toronto, 1992.

11. Parker, R. N. *Alcohol and theories of homicide*. In: Adler, F. and Laufer, W. (eds).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Vol. 4.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1993. pp 113-142.

12. Pittmann, D. J. Some sociocultural aspects of alcoholism. in D.J. Pittman(Ed.). *Alcoholism*. New York : Harper & Row 1967.

13. Room, R., Relations Between ethnic and cross national comparison, *Drinking and Drug Practices Surveyor*, 1972, 5:12

14. Schaefer, j. m., Galton's problem in

a new holocultural study of drunkenness, in J. M. Schaefer(Ed.), *Studies in cultural diffusion: Galton's problem*. New Haven, CT, 1974.

君子宜淨拭冷眼. 慎勿輕動剛腸

군자는 마땅히 냉철한 눈을 깨끗이 닦아야 하며 삼가 굳은
신념을 가벼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 菜根譚 중에서 -

唐詩 감상 / 常建의 詩

宿王昌齡隱居

맑은 시냇물 깊이를 알 수 없고
 숨어 사는 곳에 외로운 구름뿌을
 소나무숲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초승달 맑은 빛은 그대를 위함인 듯.

정자 뜰에는 은은한 꽃그림자
 약초밭에는 자라난 이끼 무늬
 나도 세상일 버리고 떠나
 이 서산에서 난학(鸞鶴)을 벗하련다.

清溪深不測
 隱居唯孤雲
 松際露微月
 清光猶爲君
 茅亭宿花影
 藥院滋苔紋
 余亦謝時去
 四山鸞鶴伴